

# 주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의식 및 식생활 관리행동\*

## Disposal Consciousness of Foods Waste and Meal Management Behavior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Housewives\*

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송요숙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곽인숙

Woosuk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Prof. : Song, Yo-Sook

Woos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Prof. : Kwak, In-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분석 |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disposal consciousness of foods waste and meal management behavior rela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o find out the ways to improve the disposal of foods wast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with 786 housewives who live in Chonbuk area.

About 45% of foods waste consisted of vegetables and fruits. The levels of cooking(usage) and disposal behavior among meal management behavior were relatively high, but food preparation(buy) score was 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nu planning before food preparation, and buying some cleaned and trimmed foods in the market should be recommended to reduce the foods waste. The levels of meal management behavior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disposal consciousness of foods waste but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t could be thought that the effor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o reduce and reuse of foods waste is needed to improve the desirable disposal behavior of that, and the well programmed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more required and practical than increase th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 이 논문은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1960년대 이전에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지 않았고 자연생태계 자정용량 범위내에서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구 증가와 산업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증가와 재활용보다는 소모성 용품의 사용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결국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각 가정의 소비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어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소비생활이 환경문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가정소비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며 원인제공자라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하였다. 즉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할 소비자의 생태학적 책임과 생활양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중적 위치에 대해 충분히 연구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할 소비자의 생태학적 책임과 생활양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소비자를 소비생활자가 아닌 구매, 사용, 처분이라는 소비 과정을 거치는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은 가능한 것이다. 가정에서 효율적인 소비행동에 의한 환경오염의 감소는 꼭 필요한 것, 저공해상품 등을 구매하는 선택적 구매와 더불어 공적·군집적인 제품의 사용 및 장기간 사용 등에 의해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매우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처분방법이다. 처분은 제품의 폐기와 함께 그대로 보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 재사용하는 경우 및 교환하는 경우 등의 자원화가 있을 수 있다(노영화, 강성진, 1992). 그 중 폐기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처분방법이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며 폐기물의 적당한 처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2Kg으로 일본보다 많고, 그중 음식류 쓰레기가 31.6%로 가장 많고 2001년에는 4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이상규, 1995; 한국 환경기술개발원, 1994). 이 음식물쓰레기의 1인당 1일의 발생량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0.34Kg으로 영국 0.26Kg, 독일 0.27Kg, 일본 0.3Kg, 미국 0.16Kg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환경부, 1997).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중에는 국내에서 생산도 되지만 수입한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이정환, 1998), 경제 발전과 더불어 식생활의 발전에 따라 각 개인마다 풍요로운 음식을 즐기고 있어 음식 쓰레기가 연간 8조원에 상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환경부, 1997).

특히 수입 식품(윤은영, 1995) 및 식품의 먹이사슬에 의하면(Clarkson, 1995) 농약 및 항생제, 방부제 등의 사용은 중금속 등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해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도 문제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공식품이나 편의 식품 섭취의 증가, 외식의 증가, 패스트푸드 섭취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김창임 외 1986; 모수미 외 1989; 김초영 외 1990; 한명주 1992, 신동화 1994). 이에 따라 식품의 과대포장 및 1회용 포장(캔류, 1회용 접시, 우유팩,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용기, 드링크류, 컵라면 등등)으로 된 것이 많아 폐기물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은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자원관리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의 감소를 위한 가정내에서의 효율적인 식품의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의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한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식생

활 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첫째, 가정에서 식생활 쓰레기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둘째, 주부들의 식생활 관리행동(식품의 구매, 조리과정,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를 사용하여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그 처리에 대한 주부의 의식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식생활 관리행동을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가정의 관리자인 주부들의 객관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 6개 문항과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를 위한 주부의 의식에 대한 9개 문항, 가정에서 식품류의 구매와 사용·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객관적 변인	
주거지	도시지역=1 농촌지역=0
가정의 소득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
주부의 교육	조사대상자의 교육년수
주부의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
주부의 취업	취업주부=1 전업주부=0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1 공동주택=0
주택의 소유	자가소유=1 임차가구=0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의식	빈도 측정
식생활관리행동(15)*	
식품구매행동(4)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음식조리과정(4)	3=가끔 그렇다
음식물쓰레기처리행동(7)	4=대체로 그렇다 5=항상 그렇다

\* ( ) 안은 문항의 숫자임

한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구매행동 4개 문항, 음식조리과정 4개 문항, 음식물쓰레기처리행동 7개 문항의 식생활관리행동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분화수준, 생활만족도, 개혁성과 환경보전과 오염에 대한 환경의식은 전보(곽인숙 외, 1998)에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3. 조사대상 및 시기

1997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전북지역의 3개도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와 읍면지역(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의 주부를 대상으로 총 800부를 배부하여 총 789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는 이중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776부가 사용되었다.

## 4. 분석방법

SAS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의식은 빈도 및 퍼센트를, 식생활 관리행동은 평균을 계산하였다. 식생활관리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식이 미치는 영향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 56.3%, 읍면지역이 43.7%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47.6%, 아파트가 37.2%,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각각 4.8%였다. 주택의 소유상태는 자가소유가 71.2%, 임차가구가 28.8%였다. 가정의 소득은 100만원이하가 12.1%, 101~200만원이하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86)

범주변수	구분	빈도(%)
주거지역	도시지역	443(56.3)
	읍면지역	343(43.7)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374(47.6)
	연립주택	38( 4.8)
	다세대주택	38( 4.8)
	아파트	292(37.2)
	기타	44( 5.6)
주택의 소유	자가	559(71.2)
	임차	227(28.8)
가정의 소득	100만원이하	94(12.1)
	101~200만원	314(40.4)
	201~300만원	267(33.1)
	301만원이상	121(14.4)
가족수	2명이하	60( 7.6)
	3명	140(17.8)
	4명	309(39.4)
	5명	184(23.4)
	6명이상	93(11.7)
주부의 교육	중졸이하	184(23.3)
	고졸이하	405(51.2)
	대졸이상	202(22.5)
주부의 연령	30대이하	215(27.2)
	40대	319(40.6)
	50대	191(24.1)
	60대이상	66( 8.1)
주부의 취업	전업주부	456(58.0)
	취업주부	330(42.0)

201~300만원이하가 33.1%, 301만원이상이 14.4%로 나타났고, 평균 소득은 218.48만원으로 1996년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15만원(통계청, 199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수는 4명인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5명이 23.4%, 3명이 17.8%, 2명이 7.6%이었으며, 평균 가족수는 4.19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가 51.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23.3%, 대졸이상이 22.5%였다. 주부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27.2%, 40대가 40.6%, 50대가 24.1,

60대 이상이 8.1%였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58.0%, 취업주부는 42.0%였다.

## 2.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그 처리에 대한 주부의 인식

### 1) 가정의 식품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분포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식품별 분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식품류는 채소류로 조사대상자의 28.3%가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패류라고 응답한 사람이 18.2%, 과일류라고 응답한 사람이 16.6%로 이들 3종류의 식품 쓰레기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명술(1996)의 채소류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주종을 이룬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여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前)처리된, 즉 잘 다듬어진 채소류를 구입하거나 싱싱하여 버릴 것이 적은 채소류나 과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 식품류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방법의 강구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3〉 가정의 식품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분포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식품류	빈도(%)
곡류 및 두류	72 ( 9.2)
육류	25 ( 3.2)
어패류(생선, 조개류)	141 (18.2)
난류	54 ( 6.9)
채소류	219 (28.3)
과일류	127 (16.6)
유지류	59 ( 7.8)
우유류	73 ( 9.7)

### 2)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시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시점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

〈표 4〉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시기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시기	빈도 (%)
음식을 조리하기 전(음식의 준비과정에서)	465 (58.9)
먹고 남기는 음식이 많아서	181 (22.9)
음식의 보관 부실로	137 (17.4)

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58.9%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3〉의 식품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서 보여진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처리된 그리고 신선도가 높은 채소나 어패류, 과일류의 구입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먹고 남긴 음식때문이라고 응답한 주부가 22.9%로 이것은 식품구매시 적절한 분량을 구매하고 조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과도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식단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의 보관 잘못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17.4%로 가장 적었으나 이것은 구매 및 조리된 음식의 쓰레기로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부가된 식품의 손실이라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음식준비와 남은 식품이나 음식은 적절한 보관방법에 따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식품구매자가 사전 처리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족수에 적합한 식단과 식사준비의 양에 대한 교육이나 음식보관요령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본다.

3) 시판 식품의 포장 단위에 대한 만족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쌀, 채소, 과일, 생선등의 식품 포장 단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20.9%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먹고 남기거나 음식의 보관 잘못으로 발생하는 40.3%의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판 식

〈표 5〉 시판 식품의 포장단위에 대한 만족도

시판 식품의 포장단위에 대한 만족도	빈도 (%)
매우 만족스럽다	24 ( 3.0)
만족스럽다	141 (17.9)
보통이다	484 (61.3)
불만스럽다	123 (15.6)
매우 불만스럽다	17 ( 2.2)

품의 적절한 포장 단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가족수의 감소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포장 단위의 식품 등 포장단위의 다양화가 개발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본다.

4)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의 인식정도 및 인식 동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구 및 효소 등이 사용된다. 〈표 6〉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탈수기,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주부는 35.9%로 전체 주부의 1/3정도이고,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주부는 불과 5.6%에 불과 하였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탈수기,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를 알게된 동기를 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텔레비전, 신문, 잡지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다는 주부가 71.7%이었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부도 12.8%이다. 따라서 가정내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스컴의 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표 6〉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의 인식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의 인식도	빈도(%)
잘 알고 있으며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44( 5.6)
잘 알고 있으나,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239(30.3)
들은 적은 있으나,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404(51.2)
전혀 아는 바가 없다	102(12.9)

〈표 7〉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의 인식 동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의 인식 동기	빈도(%)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환경교육을 통해서	44( 5.6)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565(71.7)
이웃, 친지들을 통해서	71( 9.0)
전혀 아는 바가 없다	101(12.8)
기타	7( 0.9)

### 5)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중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음식쓰레기를 퇴비 및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쓰레기의 자원화의 중요성에 대한 주부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량화와 자원화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전체의 42.5%로 가장 많았으나, 퇴비화 및 사료화 등의 자원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가 32.5%로서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 감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 24.3%보다 더 많은 것을 볼 때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퇴비 및 사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색이 다른 비닐봉지에 분리배출하는 지역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버리므로 퇴비나 사료로의 자원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8〉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
감량화가 더 중요하다	184(24.3)
자원화가 더 중요하다	246(32.5)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	322(42.5)
둘다 중요하지 않다	5( 0.7)

### 6)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의 사용 의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격 및 편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탈수기,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를 사용해볼 의사를 가진 주부가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9). 이것은 〈표 6〉 및 〈표 7〉의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의 인식정도 및 인식 동기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를 잘 알고 있는 주부가 35.9%로 매우 낮았고, 71.7%의 주부가 매스컴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를 알게 되었다고 대답한 것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만 충분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가정내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화 및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9〉 주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탈수기, 고속발효기)의 사용 의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의 사용 의지	빈도(%)
무료라면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221(28.4)
비용이 적게 든다면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319(40.9)
불편하지 않다면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149(19.1)
불편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53( 6.8)
사용하고 싶지 않다	37( 4.7)

### 7)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사전 처리된 식품의 유통 및 구입, 시판 식품 포장단위의 다양화,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처리 시설 설치, 사료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거, 가정에서 고속발효기, 탈수기, 발효용 효소의 사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4〉에서의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을 조리하기 전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 〈표 5〉에서의 시판 식품의 포장단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점, 〈표 8〉에서의 음식물 쓰레

<표 10>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방안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방안	빈도(%)
식품을 미리 다듬어진 형태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143(18.2)
식품의 포장단위가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151(19.1)
공동주택단지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처리 시설이 있어야 한다	246(31.2)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져야한다	138(17.5)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 탈수기, 발효용 효소 등이 필요하다	109(13.8)
기타	3( 0.4)

기 처리방법에서 감량화 및 자원화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점, <표 9>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탈수기, 발효기 등의 사용 의지가 95.3%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식품의 포장단위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하며, 식품은 미리 다듬어진 형태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단지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 고속발효기, 탈수기, 발효용 효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져야 하는 것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적절한 제도개선 및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8) 주부의 식생활 관리행동

주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식생활 관리행동의 수준은 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전보(곽인숙외, 1998)에서 보고된 환경의식의 수준 3.94점보다는 낮아 환경보전 행동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천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식생활 관리행동을 식품의 구매, 조리, 처리의 3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은 음식의 재 이용등의 조리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이 가장 잘 실천되고 있어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사후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이 평균 3.21점으로 비교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매행동의 점수는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표 4>)와도 일치하였다. 즉 음식물쓰레기는 구매과정인

음식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음식의 보관 부실과 같은 처리과정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생된 쓰레기의 자원화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을 처음부터 감소시키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분량의 계획 구매를 위한 식단 작성, 과다한 상차림 문화의 개선, 적절한 포장단위의 판매 등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9) 주부의 식생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식생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환경의식의 수준( $\beta= .230$ )으로 환경의식이 강할수록 식생활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주택의 유형( $\beta=.098$ ), 주부의 자아분화수준( $\beta=.084$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독주택 거주와 환경관리행동은 정의 관련성을 보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보다 더 환경관리행동을 한다는 보고들(Neuman, 1986; Oskamp, 1991; Jacobs 외, 1984)과 일치하는 결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일수록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식생활 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에서 환경보전의식이나 환경오염을 고려한 행동을 많이

〈표 11〉 주부의 식생활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수	식생활관리행동 B( $\beta$ )	식품구매행동 B( $\beta$ )	식품조리행동 B( $\beta$ )	식품처분행동 B( $\beta$ )
환경의식	.153( .230)***	.077( .264)***	.062( .230)***	.037( .098)
자아분화	.157( .084) *	-.047(-.078)	.069( .106)	.046( .059)
생활만족도	.116( .064)	.047( .062)	-.038(-.047)	.047( .049)
개혁성	.073( .049)	.038( .063)	.073( .049)	.045( .058)
주거지역(농촌)	-.644(-.051)	-.186(-.034)	-.644( -.051)	-.249( -.035)
주택의 유형(공동주택)	1.233( .098)**	.569( .105)	-.411( -.071)	1.520( .215)***
주택의 소유(임차가)	.578( .042)	-.703(-.109)	.629( .091)	-.817( -.097)
주부의 교육수준	.182( .034)	.288( .125)	.203( .082)	.261( .087)
가족수	-.135(-.027)	-.126(-.056)	-.0004(-.0002)	.020( .007)
가정의 소득	-.002(-.036)	.004( .137) *	-.002( -.036)	-.0002(-.066)
주부의 취업	.122( .059)	.040( .044)	-.016( -.017)	-.047( -.040)
주부의 연령	1.280( .116)*	.216( .068)	.380( .113)*	.490( .119)
Constant	27.645***	4.122*	7.265***	14.811***
F-value	7.463***	4.143**	2.696**	2.144*
R <sup>2</sup>	0.098	0.150	0.103	0.084

\*p&lt;.05 \*\*p&lt;.01 \*\*\*p&lt;.001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총설명력은 9.8%였다. 이것은 Young(1986)의 일상생활에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동기의 역할을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와 재할용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을 보인 것과 관련지어 보면 환경에 대한 책임 인식이 강할수록 환경보전적인 생활을 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주부들의 식생활관리행동을 식품구매행동, 식품조리행동, 식품처분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식품구매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환경의식( $\beta=.264$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가정의 소득( $\beta=.1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식단을 작성하고, 식품의 구매시 적절한 양과 환경을 고려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조리과정에서는 환경의식( $\beta=.264$ )과 연령( $\beta=.113$ )이 영향을 미쳐 환경의식이 높고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남은 식품이나 음식은 그 양이 적더라도 보관하였다 다시 사용하거나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사

람들이 환경보전행동에 참가하는 경험율이 높다는 일본의 환경청(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식품의 처분행동에서는 주택의 형태( $\beta=.215$ )만이 영향을 미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쓰레기의 발생시 적절히 자원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며,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가족의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도 음식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공동설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쓰레기량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과 식생활 관리행동과의 관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식이 환경보전을 위한 식생활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판 식품의 포장단위에 대한 만족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구의 인식정도 및 사용의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중요성에 따른 식생활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식에 따른 식생활관리행동은

유의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부들의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의식은 비교적 높은 의식을 보였으나 오염방지를 위한 참여도와 관리행동은 의식에 못 미치는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이정우 외, 1989) 및 최남숙(1994)의 주부들의 환경의식수준은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환경보전행동수준은 높지 않았다는 보고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의식과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식의 향상 못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던 점(김태완, 1996)을 고려해보면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요약 및 결론

주부들의 가정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의식 및 식생활 관리행동을 파악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 현재 전북지역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쓰레기는 채소류나 어패류로 인한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前)처리된 채소류를 구입하거나 신선도가 높아 버릴 것이 없는 채소류나 과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요망된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시점을 보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식품구매자가 사전 처리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족수에 적합한 식단과 식사준비의 양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식품의 포장단위는 현재보다 다양해져 가족수에 적합한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주부의 의식을 알아본 결과 감량화보다는 재활용하는 자원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가정에서 고속발효기, 발효용 효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며,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절한 쓰레기 수거제도의 개선 및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주부의 식생활에 관련된 환경보전 행동은 환경의식수준보다 낮으며, 환경을 고려한 행동이 사용과정에서 가장 잘 실천되고 있으며, 구매 행동이 가장 문제가 있으므로 식단작성에 의한 적절한 분량의 구매 및 준비, 적절한 포장단위의 구매 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식생활관리행동이 일반적인 환경의식과는 정의 상관을 보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의식과 행동은 전혀 별개로 볼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을 해야한다는 의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식을 행동에 옮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주부들의 일반적인 환경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보전행동과 같은 생활에 실천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환경교육은 단지 환경보호나 환경보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필요성에 대한 환경의식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보다는 행동과정을 교육, 훈련시킬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부의 환경의식과 실천행동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1) 광인숙, 송요숙, 김태년, 김경애(1998) "환경의식과 가정쓰레기의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18.
- 2) 김창임, 이심렬, 윤은영, 이경신, 최경숙, 모수미(1986) "패스트푸드의 의식행동에 관한 실태조

- 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3).
- 3) 김초영, 남순란, 광동경(1990) "Fast Foods의 이용실태조사 및 영양 밀도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61-369.
  - 4) 김태완(1996) "음식물쓰레기 실천방안" 국립환경연구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 포럼, pp. 115 - 120.
  - 5) 노영화, 강성진(1992)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소비생활 개선방안연구", 연구보고서 92-04, 한국소비자보호원.
  - 6) 모수미, 전미정, 백수경, 이수경(1989)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2차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4(1).
  - 7) 박명술(1996)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 국립환경연구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 포럼, pp25-40.
  - 8) 신동화(1994) "생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편의제품 선호도 조사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3), 325-327.
  - 9) 윤은영(1995) "소비자와 환경", 생활과학연구, 1, 115-122.
  - 10) 이상규(1995) "음식찌꺼기 퇴비화 기술",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98-203.
  - 11) 이정우, 이명숙(1989) "도시주부의 생활환경오염 인지와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8, 숙명여대.
  - 12) 이정환(1998) "식품수급 현황과 수입대응 전략",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 6-11
  - 13) 최남숙(1994) "환경교육과 환경의식이 환경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2(5), 29-42.
  - 14)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 15)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4) "쓰레기발생량".
  - 16) 한명주(1992)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96.
  - 17) 환경부(1997)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및 기술동향과 감량화. 자원화 실천사례".
  - 18) Jacobs, E.,Harvey, Jon S.,Bailey & James I.Crews(1984)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 community-based resources recovery program", J. of Politics, 65, 127-145
  - 19) Neuman, K.(1986) "Personal values and commitment to energy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8(1), 53-74
  - 20) Oscan, S. & Harrington M.J. & Sherwood, D.L. & Okuda, S.M. & Swason, D.C.(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4), 494-519
  - 21) Young, D.R.(1986) "Encouring environmentally appropriate behavior: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J. of Environmental System, 15(4), 282-292
  - 22) Clarkson, Thomas W.(1995)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the food chain", Am. J. Clin. Nutr., 61, 682s-686s.
  - 23) 小澤紀美子(1989) "주환경교육을 생각한다", 日・環境廳 刊, 204-215